

LPGA투어 다승 · 상금 1위 오른 대니얼 강은 누구?

코로나 19 이후 재개된 LPGA 2주 연속 우승
최종 15언더파 269타...다승 · 상금 랭킹 1위

재미교포 대니얼 강(28)이 올해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에서 가장 주목받는 선수로 이름을 올렸다. 대니얼 강은 10일(한국시간) 미국 오하이오주 살베니아의 하일랜드 메도스 골프장(파71)에서 열린 대회 4라운드에서 버디 6개, 보기 3개를 쳐 3언더파 68타를 기록했다. 최종합계 15언더파 269타를 친 대니얼 강은 드라이브는 챔피언십에 이어 2주 연속 우승을 거머쥐었다. 개인 통산 다섯 번째 우승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약 5개월 만에 재개된 LPGA 투어에서 독보적인 활약을 보여주고 있다. 대니얼 강은 다승 1위에 올랐고 25만5000달러(한화 약 3억원)의 상금을 차지해 상금랭킹(56만6000

달러)에서도 1위에 올라섰다. 대니얼 강은 골프팬들에게 낯선 이름은 아니지만, 2주 연속 우승으로 주목을 받는 건 처음이다. 그는 1992년생으로 한국 이름은 강효임이다.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에서 태어난 대니얼 강은 2007년 14세의 나이에 US여자오픈에 출전하는 등 유망주로 손꼽혔다. 대니얼 강은 2010년, 2011년 US여자아마추어 골프선수권대회에서 우승했다. 당시 2년 연속 우승은 15년 만이었다. 대니얼 강은 2012년 LPGA 투어 무대에 데뷔했다. 그러나 대니얼 강에게 LPGA 투어는 험난했다. 이렇다할 성적도 내지 못했고 부상 등 컨디션 난조도 겹쳤다. 2014년에는 LPGA 타이완 챔피언십과 LPGA 투어 블루베이 대회에서 2주 연속 출원을 기록해 부상으로 아우디 A6와 뷰익 라크로스 등 자동차 2대를 부상으로 받기도 했다. 2017년 자신의 이름을 알릴 수 있는 기회를 잡았다. 시즌 두 번째 메이저 대회인 KPMG 위민스 PGA 챔피언십에서 우승의 기쁨을 누렸다. 자신의 첫 우승을 메이저 대회 우승으로 장식한 것이다. 아마추어 시절을 포함해 정확히 144경기 만에 나온 우승이었다. 대니얼 강은 2018, 2019년 뷰익 LPGA 상하이에서 2연패를 달성하며 자신의 커리어를 쌓았다. 지난해 10월에는 부산에서 열린 LPGA BMW 레이디스 챔피언십에서 장하나와 연장 3차전까지 가는 접전을 펼치며 준우승에 올라 국내 팬들에게 인상적인 경기를 선보였다. 올해 정확한 아이언샷을 앞세워 안정된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는 대니얼 강은 2주 연속 우승을 기록하며 생애 최고의 시즌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



미국 교포 대니얼 강이 9일(현지시간) 미 오하이오주 살베니아의 하일랜드 메도스 CC에서 막을 내린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마라톤 클래식에서 우승 후 트로피를 들고 포즈를 취하고 있다. 대니얼 강은 최종합계 15언더파 269타를 기록해 17번 홀까지 단독 선두를 지킨 리디아 고에 1타 차 극적 역전승을 거두며 2주 연속 우승을 차지했다.

STL 사장도 안타까워하는 김광현 데뷔 첫 시즌

STL, 코로나19 확진자 17명으로 늘어



세인트루이스 카디널스 김광현이 7월 24일(현지시간) 미 미주리주 세인트루이스 부시 스타디움에서 열린 2020 메이저리그(MLB) 피츠버그 파이리츠와의 개막전을 마치고 포수 아디에르 몰리나와 얘기하고 있다. 김광현은 팀이 5-2로 앞선 9회 초 등판해 1이닝을 2피안타 2실점(1자책)으로 힘겹게 막아 MLB 데뷔 첫 세이브를 올렸다.

빅리그 첫 시즌을 보내는 김광현(32·세인트루이스 카디널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변수와 싸우고 있다. 힘겨운 데뷔 시즌을 버텨내고 있는 김광현에 구단 사장도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10일(한국시간) 세인트루이스 지역 언론 KSDK에 따르면 존 모젤리와 세인트루이스 사장은 현지 매체와 인터뷰에서 가장 신경 쓰이는 선수로 김광현을 꼽았다. 모젤리아 사장은 “김광현은 그

의 꿈을 이루기 위해 미국으로 야구를 하러 왔다”면서 “하지만 미국은 코로나19에 잘못 대처하고 있고, (김광현의 나라인) 한국은 대응을 잘하고 있다”고 짚었다. 이어 “(메이저리그에서) 코로나19가 통제되지 않으면서 김광현은 오랫동안 출전하지 못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광현은 지난 시즌을 마친 뒤 포스팅 시스템을 통해 세인트루이스와 2년, 800만 달러와 계약하고 미국 진출의 꿈을 이뤘다.

시범경기에서는 4경기 8이닝 무실점을 기록하며 올 시즌 활약을 예고하기도 했다. 그러나 코로나19로 스프링캠프가 중단되고, 개막이 연기되는 등 예상치 못했던 돌발 변수를 만났다. 우여곡절 끝에 시즌 개막이 시작된 후에는 팀에 코로나19 직격탄을 맞으면서 경기를 치르지 못하고 있다. 세인트루이스는 최근 팀 내에서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발생했다. 매체에 따르면 추가 확진자가 또 나오면서 세인트루이스의 확진자는 총 17명으로 늘었다. 이 중 10명은 선수인 것으로 알려졌다. 구단의 일정도 울스톱됐다. 세인트루이스는 개막 후 5경기를 소화한 뒤 지난 1일부터 경기를 치르지 못하고 있다. 11~13일 연일 예정이던 피츠버그와 3연전도 연기됐다. 12일로 예정됐던 김광현의 첫 선발 등판 경기기도 자연스럽게 미뤄졌다. 김광현은 개막전이었던 지난달 25일 피츠버그와 경기에서 마무리 투수로 나와 1이닝 2실점을 기록한 뒤 마운드에 오르지 못하고 있다. 모젤리아 사장은 “김광현이 6개월 동안 가족을 만나지 못하고 있다는 점도 안타깝다. 그런데도 그는 항상 웃고 있다”며 안쓰러워했다. 낯선 외국 생활을 하며 언어에도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점에도 마음을 썼다.

며 평균자책점 9.00으로 부진한 모습을 보였다. 결국 지난 7일 방출 대기(Designated for Assignment) 조치됐다. 일주일 동안 영입을 원하는 구단이 나타나지 않으면, 마이내리그로 내려가거나 방출될 위기였다. 휴스턴이 손을 내밀면서 극적으로 빅리그 경력을 이어가게 됐다. 레일리는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KBO리그 롯데 자이언츠에서 뛰었다. 통산 48승53패 평균자책점 4.13을 기록했다. 올 시즌을 앞두고는 재계약이 불발돼 미국으로 돌아갔다.

레일리, 휴스턴 유니폼 입는다

KBO리그 출신...롯데서 48승53패



KBO리그 출신 브룩스 레일리(32)가 새 팀을 찾았다. 10일(한국시간) 메이저리그 공식 홈페이지 MLB닷컴에 따르면

휴스턴 애스트로스는 레일리를 영입했다고 발표했다. 휴스턴이 신시내티에 내줄 선수는 추후 발표 예정이다. 레일리는 곧 메이저리그 로스터에 합류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휴스턴은 레일리의 자리를 만들기 위해 로베르토 오수나를 45일 부상자 명단으로 이동시켰다. 레일리는 올 시즌 신시내티에서 4경기에 출전해 4이닝을 던지

‘이강인 따돌림 구설’ 주장 파레호 이적설

“발렌시아-비아레알, 이적 합의” 보도



스페인 프로축구 발렌시아에서 이강인(19)을 따돌렸다는 구설에 오른 주장 다니 파레호(31)가 팀을 떠날 것이라는 보도가 나왔다. 스페인 매체 ‘아스’는 10일(한국시간) “발렌시아가 비아레알과 파레호, 프랑시스 코클랭의 이적에 합의했다. 메디컬 테스트를 받을 예정이다”고 전했다.

주장을 맡았던 파레호는 최근 이강인 등 어린 선수들을 따돌렸다는 구설에 올랐다. 지난 5일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EPL) 맨체스터 시티로 이적한 페란 토레스는 “파레호와 인사를 나누기까지 많은 시간이 필요했다.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폭로했다. 지난해 9월 마르셀리노 토랄 감

독이 팀을 떠나자 파레호를 중심으로 고참급 선수들이 이강인과 토레스를 원흥으로 지목했다는 내용이다. “동료들과 대화를 나눌 수 없었다”며 따돌림의 주범으로 지목했다. 2011년부터 발렌시아에서 뛰던 파레호는 중앙 미드필더로 그라운드 안팎에서 핵심이었다. 그러나 유망주들을 중심으로 재편할 방침을 세운 하비 그라시아 신임 감독 체제에서 예상치 못한 논란까지 불거지자 이적이 급물살을 타는 것으로 보인다. 이강인은 최근 다니엘 바스, 가브리엘 파울리스타와 함께 2020~2021시즌 유니폼 모델로 나섰다. 셋 중 가운데에 자리하며 새 시즌 중추적인 역할을 맡을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한편, 발렌시아 구단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검사로 2020~2021시즌 대비를 시작한다. 구단이 발표한 대상자에는 이강인과 파레호, 코클랭 모두 포함돼 있다. 뉴스

나상호 ‘멀티골’에 웃은 김남일 감독 “기다린 보람 있다”

성남, 인천 원정에서 2-0 승리...6위로 꺾춤

프로축구 성남FC 김남일 감독이 올 시즌 마수결이 득점에 성공한 나상호의 활약을 칭찬했다. 성남은 9일 오후 7시 인천축구전용경기장에서 열린 인천 유나이티드와의 하나원큐 K리그1 2020 15라운드 원정 경기에서 나상호의 멀티골로 2-0 승리를 거뒀다. 이날 승리로 4승5무6패(승점 17)를 기록한 성남은 11위에서 6위로 꺾춤 뛰어올랐다. 또한 2011년 4월17일 인천 원정(1-2패) 이후 9년 동안 11경기 무패행진(6승5무)으로 강한 면모를 이어갔다. 김남일 감독은 경기 후 “정말

힘든 경기였다. 선수들이 열심히 해줘 승리했다. 나상호가 오랜만에 골을 넣어 승리했다. 기다린 보람이 있다”라고 말했다. 성남은 국가대표 골잡이 나상호가 해결사 역할을 했다. 올 시즌 성남으로 임대 온 나상호는 7경기 만에 마수결이 득점에 성공했다. 김 감독은 “공격에서 미흡한 점이 많았는데, 나상호가 골로 부딪감을 떨치는 계기가 됐을 것”이라고 칭찬했다. 11위에서 6위로 올라선 김 감독은 “오늘이 가장 중요한 고비였다. 정신적으로 인천보다 앞서야 한다고 주문했는데 선수들이

잘 해줬다”라고 말했다. 전반 경기 도중 상대 선수와 충돌로 교체된 김동현에 대해선 “출혈이 심해 경기를 하는데 무리가 있을 것 같아 교체했다”라고 설명했다. 성남은 수비수 이태희가 퇴장을 당했다가 비디오판독(VAR)을 통해 취소되며 위기를 넘겼다. 김 감독은 “VAR이 정확히 봐서 승리할 수 있었다. 심판 판정에 대해선 항상 존중한다”라고 말했다. 치열한 중위권 싸움을 펼치고 있는 김 감독은 “최근 경기 수가 많아 회복이 관건이다. 아무래도 선수층이 얇다 보니 고충이 있지만, 현실에 충실해지려 노력한다”라고 강조했다. 뉴스